

이지상의 '여행과 삶'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

몇 년 전부터 연말연시나 명절 때 인천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 수가 역대 최다라는 보도를 계속 보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 승객은 78만6000명, 추석 연휴 기간에는 8만 2000여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라는 말이 앞에 붙고 있다. 가족 단위로 혹은 친구·연인들이 연휴를 즐기는 경우도 많지만 '나홀로' 떠나는 해외여행자들도 많아진다고 한다. 또한 국내의 알려진 여행지는 주말과 휴가철이면 어딜 가나 북적인다.

말씀도 있고, 주말마다 국내 여행하며 사진 찍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 왜 그럴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지친 것이 아닐까? 알베르 카뮈가 시시포스(Sisyphos)의 신화에서 말했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무엇 때문에'라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왔는데 그 끝이 어딜까라는 회의가 드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300~400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 사회를 우리는 30~40년 만에 이룩하느라 엄청나게 땀 흘렸고 수많은 부작용을 거쳤다. 고생하고 나면 안정되고 편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다. 그런데 웰빙,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얘기했듯이 확립적인 가치, 이데올로기들이 붕괴되면서 모든 가치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치의 다신교' 현상, 확고한 정체성이 무너지고 이성보다 감정이 난무하며, 인터넷·SNS가 휩쓰는 혼란스런 탈근대 사회가 성립 다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의 모델은 쉽게 보이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불안한 노후 문제, 고령화, 다문화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게 금방 쉽게 해결될 문제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힘들고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숨통을 트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외나 국내 여행지에 가서 잠시 세상을 잊는다. 그런데 종종 돌아온 여행자들은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여행하던 시간은 달콤하지만 다시 펼쳐지는 현실은 쓰기 때문이다. 늘 여행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여행을 마치고 온다고 마냥 행복한 삶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야 하니 삶은 윤택처럼 되풀이된다. 그 상황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그동안 돌아온 여행자들에게 마음을 다지고 맘 흘리며 '역동적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 역동적 뿌리 내리기란 뿌리를 내리듯 다시 떠나는 꿈을 꾸는 것을 말한다.

머뭇거리며 떠나기 공존해야만 삶에 활기가 생긴다. 여행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소모적 행위가 아니라 각박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트고, 다시 삶의 기운을 불러내는 역동적 행위다. 예전에 어떤 외국어의 조사에서 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여행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성공할수록 시간이 없어지고 관계가 복잡해진다.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지점에서 잠깐 멈추고, 틈을 내서 여행하는 행위는 결단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나는 종종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일상이 즐거운 세상을 상상해 본다. 혹시, 당신은 여행을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건 살 만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웃과 고향이 좋고 각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냥 여행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 여행을 떠나든 현실에서 묵묵히 살아가든, 자신이 만족스럽다면 바로 그곳, 그 시간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니겠는가? <여행자가>

머뭇거리며 떠나기 공존해야만 삶에 활기가 생긴다. 여행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소모적 행위가 아니라 각박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트고, 다시 삶의 기운을 불러내는 역동적 행위다. 예전에 어떤 외국어의 조사에서 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여행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성공할수록 시간이 없어지고 관계가 복잡해진다.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지점에서 잠깐 멈추고, 틈을 내서 여행하는 행위는 결단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나는 종종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일상이 즐거운 세상을 상상해 본다. 혹시, 당신은 여행을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건 살 만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웃과 고향이 좋고 각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냥 여행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 여행을 떠나든 현실에서 묵묵히 살아가든, 자신이 만족스럽다면 바로 그곳, 그 시간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니겠는가? <여행자가>

의료칼럼

노년의 불청객 허리뼈 골절



박 훈 광주새우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마세오.'라며 몰아세웠고, 어르신은 허리도 아프지만 무안하셨던지 눈물을 보이고 마셨다.

골다공증은 노년의 생활을 위협한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이다. 남성은 위험도는 덜하지만 80세 전후부터는 골밀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미리 관심을 해야 한다. 팔다리와 허리의 만성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골절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우리 몸의 하중을 대부분 지지하는 허리뼈가 가장 취약하다. 절반 이상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척추 골절이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을 경험한 환자들을 면담해보면, 일단 대다수가 매우 우울한 상태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의사가 뼈가 잘 붙었다고 아무리 확인을 해주고 안심을 시켜 주어도 다시 골절이 될까봐 항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등허리가 뻠하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허거나 기증에 하던 작업과 운동이 힘들어지니 우울해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나마 가족이 있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만 홀로 지내거나 배우자를 오히려 돌봐야 하는 분들은 그 고충이 더욱 크다고 한숨을 탄다.

임상의사는 초기에 골절을 의심하고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환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소한 외상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노인들은 '요새 일을 조금 더 했을 뿐인데, 허리가 빠지듯이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걸린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 같은 경우 언뜻 보면 피로가 누적돼 근육통이 생긴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2~3주간 지켜보고 약을 먹었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의사라면 대변에 골절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길 권한다. 다만 엑스레이 검사로 진단이 불완전하다면 정밀 검사를 해볼 수 있다.

치료는 적어도 2주 이상 절대 안정을 하면서 골절 정도에 따라 척추 보조기를

한 달 이상 착용한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동일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하는 모든 작업이나 운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약물과 신경치로도 병행하면 좋다.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고 생활이 힘들다면 빠른 통증 완화와 척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수술을 권한다. 경피적 추체 성형술은 국소 마취로 시행하는 매우 안전하고 간편한 수술이다.

골다공증은 연령 증가와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인데, 치료가 까다롭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골절이야말로 이 병의 대표 합병증이고 매우 힘든 상황을 만든다. 재발도 잦고(1년내 재발 위험 10배), 회복도 더디다.

필자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예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다. 뼈에 칼슘을 효과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찬 가지 수를 3~4개로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유지해줘야 한다.

기고

도시재생과 행복한 상생



안 용 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하면서 임대료가 치솟게 된다.

도시재생의 긍정적 취지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후 대규모의 상업자본이 침투해 원주민과 노동자 계층이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 방송국에서 대학로, 홍대, 서촌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대학로 극장은 1987년 개관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다가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4월에 폐관했다. 처음 극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한적한 주택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 연극인들이 모여들면서 생동감이 넘쳐났고, 이후 2004년 서울시의 문화지구 지정으로 건물 주인은 혜택을 입었지만 연극인들은 치솟는 명값과 임대료로 빚쟁이가 됐다.

젠트리피케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적고, 세입자 등의 보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9년 1월 서울 용산참사다.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상가 세입자인 철거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용산사태는 아직까지도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논란이 되고 있지

만, 사태의 본질은 재개발이라는 공익집행자인 강자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 조정 부재로 봐야 한다.

앞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전면적인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변화하여 점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과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지난해 4월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상가 활성화'를 주제로 우리시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동 일원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 5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또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사업 등 가치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재생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도시재생관련 전문가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양태는 특정한 문화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특정 장소를 잘 가꾸놓으면 이내 부동산 게임이 시작되고, 결국 동네 가치를 올려놓은 사람들은 외부로 밀려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퇴색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하

기도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정적 측면만 가진 것은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나 상업 자본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도시재생의 주역이나 기존의 세입자가 향후 활성화된 이후에도 상생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도심 개발에 의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자체+건물주+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도 대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자체는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상생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관리금을 보조하는데 기여하며 임차인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가난한 원주민과 도시재생의 주역들 그리고 세입자 등 시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社說

광주 삼성전자 생산설비 추가 이전 없도록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냉장고 1개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해 지역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 삼성전자의 경우 생산 기반이 열악한 광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설비 축소'라는 말만 들어도 지역경제계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회사 측은 일단 국내외 경제 흐름에 대응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냉장고 유휴 설비를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공장에서는 일 반냉장고 생산 3개 라인을 통해 감차냉장고 등을 만들어 왔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베트남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결국 비수기를 맞아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기존 라인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력확보와 생산 물량의 감소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대규모 베트남 투자 계획을 밝힌 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생산라인 완전 이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베트남 투자액이 3조

원을 넘어설 만큼 대규모여서 결국에는 세타기·에어컨 생산 라인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끊임 없이 제기된다.

1년 매출액이 4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지방세 납부 1위 법인인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생산설비를 축소한다면 지역 경제는 그만큼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베트남 이전 결정 후 일부 협력업체는 벌써부터 납품 물량 감소 예상으로 자금줄이 막히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한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피해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일부 시설을 옮기면서 밝힌 "추가로 생산시설 이전이나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영 여건만을 따져 이 지역의 시설을 축소할 경우 신규 생산라인 완전 이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베트남 투자액이 3조

학원가 '짜깁기 불법 교재' 유통 뿌리 뽑아야

광주 시내 학원가를 중심으로 수억 원어치의 '짜깁기 불법 교재'가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광주 동부경찰서 인근 일부 외국어 학원의 경우 특정 인쇄업자와 손잡고 무더기로 이들 교재를 판매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정상적으로 출판된 서적에서 임의로 일부 내용(문제)을 뽑아 편집한 '짜깁기 교재'의 유통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 서적 판매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동부서 인근 외국어 학원을 비롯한 10여 곳이 특정 인쇄업자와 손잡고 수십 종에 달하는 외국어 시험 부교재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해당 서적들은 정식 출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외국인 관련 삽화들을 곳곳에 삽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 출판된 외국어 서적의 문제 일부를 임의로 빼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일부 외국

어 학원은 그동안 학원 내에서 학생들에게 자체 판매했던 것과는 달리 시중 서점을 통해 버젓이 짜깁기 된 서적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교재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은 돈벌이에 급급해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들 불법 교재는 정상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돼 정상적인 교재를 판매하는 서점들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히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경찰은 정상적인 출판 절차 없이 불법 짜깁기 되어 유통되는 외국어 부교재가 수십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학원 강사들이 기존에 출간한 서적에서 좋은 문제만 골라 자체 편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행으로 여기는 점이다. 교육 당국과 경찰은 불법 교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고 동시에 불법이 확인된 학원과 학원 강사들에 대한 일방백계 차원의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신년 운세를 봤다. 생각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귀인이 입성하여 나를 도와 일을 성사시킬 것이다.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는 쾌다. 올바른 행동에 귀인의 원조가 가세되니 모든 것이 열려 가리라."

운세가 적힌 종이를 받아 들고 기분이 좋아졌다. 행동도 올바르게 해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행운이 오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이지만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동전과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는 바구니에 봉투를 넣었다.

이전에 내 운세를 봐준 권 원승이다. 원승이 두 마리가 점집을 차린 곳은 백화점 갤러리. 벽면엔 "재미로 보는 운세"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즐기시길. 꼭 한 장씩만... 한 장의 마법을"이라 적혀 있다. 원하는 사람은 원승이 앞에 놓인 상자 속에서 운세가 적힌 종이 하나를 뽑으면 된다. 내가 운세 보는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옆에서 작품관 감상하던 몇 사람도 운세를 보기 시작했다.

원승이 점은 정운학 등 14명이 참여한 신세계 갤러리 '헬로우 미스터 몽키

전'(2월15일까지)에서 만날 수 있다.

궁금한 게 있어 작품을 만든 손봉채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선 누구나 긍정적인 점괘를 얻을 수 있는가 물었다. 글귀는 200여 종인데 부정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또 하나, 복재의 사용처다. 처음엔 막연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쓸까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자가 너무 많아 사용처를 다시 찾고 있다 했다. 손 작가는 전시가 갤러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전시장 바깥으로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작품이라 했다.

이번 전시작 중에는 재미있는 게 많다. 김지영 작가의 '매력적인, 나'에 등장하는 원승이는 정말 매력적이다. 이아남 작가의 '쇄해명명전투도'는 꼬마들이 가장 즐겨워하는 작품이다. 윤남승 작가의 원승이 조각 표정은 익살맞다.

운세 봐 주는 원승이 덕에 신년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을 하게 됐다. 아주 적은 액수의 기부(?)지만 말이다. 그녀처럼, 나를 도와줄 귀인은 꼭 만나야 할 텐데 어디로 가야 하나. 누가 살짝 귀뜸이라도 해 주면 좋으련만.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1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집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